‘청춘, 평화의 노래’로 ‘오월’ 물들다

광산구, 매일 오후 5시18분 온라인 공연…윤상원 일대기 전시도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오월국제교류음악회’ 21일 광산문예회관

광주 광산구가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오월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한 문화행사를 이어간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5시18분 온라인을 통해 ‘청춘(靑春)! 5·18 평화를 노래하다’가 진행된다.

첫날 ‘상록수’를 시작으로 광산구 문화예술과 유튜브 채널 ‘문화광산ON’을 통해 ‘그날이오면’, ‘광야에서’ 등 평화와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민중가요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최후 항전일이었던 27일에는 오월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진다. 이 공연에는 10대 고등학생부터 20~30대 젊은 음악가, 일반 시민 음악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을 누비며 윤상원 열사의 삶과 정신을 알린 ‘윤상원 열사 일대기 그림’은 올해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다시 시민을 만난다.

사단법인 윤상원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전남여고가 주관한다. 6월 3일까지 전남여고 갤러리 예담 1929홀에서 진행된다. 열사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 80년 5월 당시 투쟁의 모습을 담은 12점의 그림 작품을 볼 수 있다.

학교 측은 학생, 주민 등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공휴일에도 전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광산구 본량동 주민들이 설립한 마을기업 본빵협동조합도 ‘오월주먹빵’을 통해 오월정신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오월주먹빵’은 5·18 당시 광주시민의 가슴 서린 사연과 함께 항쟁의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설명문, 주먹밥을 만들던 시민의 모습, 다친 시민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나눠준 헌혈자 명단, 시민의 눈과 귀가 됐던 ‘투사회보’ 사진 등을 담고 있다.

5·18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올해도 가정은 물론 기업, 교회 등 여러 곳에서 ‘오월주먹빵’ 구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월수업’을 위해 ‘오월주먹빵’을 구매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빵협동조합은 최근 광주 남구, 서울, 경남 진주시 등 전국 6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에 ‘오월주먹빵’을 보내기도 했다. 전국의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5·18 역사를 배우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주체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홍기은 본빵협동조합 이사는 “오월주먹빵이 5·18의 나눔, 아픔, 사랑을 배우는 학습 자료로도 활용되면서 학교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전국에 많은 아이들이 오월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 ‘오월주먹빵’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에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오월국제교류음악회’도 열린다. ‘오월 광주에서, 평화를 노래하다 : Peace for Ukraine’를 주제로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감동 후불제를 통해 모인 모금액은 전액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5·18의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는 대한민국을 넘어 홍콩,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를 비추는 ‘시대의 빛’이 되고 있다”며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실천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행복나루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행복나루복지관으로 점심 드시러 오세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경로식당 재개…3차 접종 시민 대상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행복나루노인복지관(이사장 신선호·이하 복지관)이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중단했던 경로식당을 다시 재개했다.

18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경로식당을 지난 16일부터 다시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경로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이후 2년여간 운영이 중단됐으나, 코로나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한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경로식당 운영 재개에 앞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경로 노인들의 호평을 받는 ‘소문난 맛집’으로 거듭나기 위해 주 5회 균형 잡힌 영양식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노인의 결식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경로식당 이용자는 “식당이 다시 운영되는 순간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라면서 “복지관의 맛있는 점심이 하루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경로식당 운영 재개를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정성이 담긴 영양 식단과 소문난 맛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오순도순 마을살이’

107건 접수, 이달 말 선정

광주 광산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 ‘2022 오순도순 마을살이’ 행복동행 주민공모에 107건의 최종계획서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 지원사업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유형별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는데, 마을공동체활성화 48건, 광산행복아파트 36건, 아파트 대표회의 3건, 2030 동네친구 만들기 9건, 아파트 가족공동체 4건, 온라인 주민투표 지원사업 7건이 최종 접수됐다.

앞서 광산구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각 동 마을활동지원가와 함께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했다.

광산구는 접수된 최종계획서에 대해 동과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청취 및 부서 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선정 공고한 뒤 6월 중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공동체 활동이 기지개를 펴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워진 것 같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와 대상 선정을 통해 다양한 공간, 영역에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덜어먹기 식문화·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광산구,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광주 광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2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최고상인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3일 제21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음식문화개선 정부 포상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매년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자발적 참여유도 등을 5가지 항목을 평가해 포상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 등 음식문화 수준 향상 등 우수한 성과를 낸 2곳에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광산구는 덜어먹기 실천을 위한 식기구 지원 등 적극적으로 안전한 식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한편 광주지역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위생등급업소를 지정하는 성과를 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준 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물”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산구, 지방선거 투표율 올리기 ‘앞장’

온·오프라인 투표 참여 캠페인

광주 광산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를 맞아 시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투표 참여 홍보 릴레이 운동을 시작했다.

또 ‘온 마을을 밝히는 빛, 우리의 투표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사회적관계망서비스 투표 참여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별 맞춤형 투표참여도 지원한다. 각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문 등을 통해 사전투표일과 본 선거일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안내했다.

농촌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이동편의차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내 경로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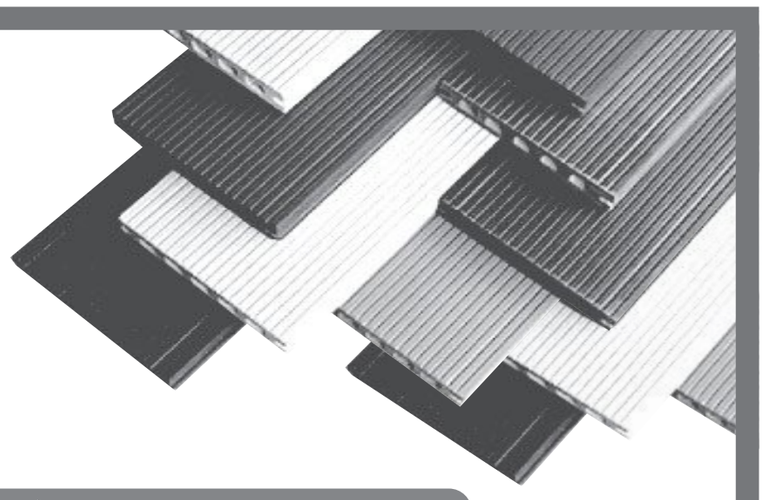
6월 1일 본 투표일에는 임곡, 동곡, 삼도동 등 8개동 14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25인승 투표 편의차량 10여 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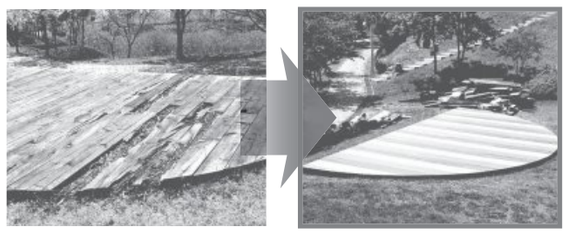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본 투표일 투표소와 근접한 공영주차장 3개소도 무료 개방한다.

시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정한 선거사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산구 예상 선거인수는 32만 6000여 명에 이른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한 표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사전투표부터 본 투표까지 곳곳마다 시민의 발길이 이어져 아름다운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